

# 북한개발소식

2024 OCT

10

통권 228호

이달의 주제

북한 민생에 대한 우려와 우리의 기도

탈북민 수기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1)

북한뉴스

북,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  
김정은 “핵물질 생산 총력”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북한 민생에 대한 우려와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CONTENTS 2024 OCT

이달의 주제 :

### 북한 민생에 대한 우려와 우리의 기도

- 권두칼럼 **01** 북한 민생에 대한 우려와 우리의 기도
- 칼럼\_1 **10** 임을출\_ 최근 북한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 칼럼\_2 **17** 이상용\_ 경제 문제로 본 북한인권 실태
- 칼럼\_3 **22** 조총희\_ 북한 주민의 먹을 권리의 지역 차이에 대한 소고
- 탈북민수기 **28** 김열매 성도\_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 (1)
- 서평 **33** 김정은시대 북한사회 100문 100답
- 북한뉴스 **35** 북,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 김정은 “핵물질 생산 총력”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와 이를 통한 무기 수출을 통해 대북 제재를 일정 부분 우회하고 외화난을 어느정도 덜어냈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북한 경제 전반에 여전히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 지표들이 심상치 않다. 먼저 환율 급등이 눈에 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북한원·달러 환율은 8000 원대였으나 8월 말 기준으로 1만 6000원까지 올랐다. 1년 사이에 두 배가 폭등한 것이다. 북한원·위안 환율도 연초 1250원대에서 8월에는 1900 원 선까지 치솟았다. 수출에 비해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북한 입장에서 몇 배나 비싸게 주고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형편이 된 것이다.<sup>1</sup> 물가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올 9월 식량 가격은 예년에 비해 높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 가격보다도 높아져 있다. 국내 식량 생산량 감소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량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sup>2</sup> 북한은 올 6월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의 재정상 고정범을 리명국으로 전격 교체하였는데, 환율과 물가 관리 실패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sup>3</sup> 민생 경제의 어려움

1 북한 원·달러 시장 환율, 또 최고치 경신 후 소폭 등락 중, 데일리NK (2024.09.23.), <<http://www.dailynk.com/20240923-1/>>

2 심상찮은 北 시장 식량 가격...9월 중순 쌀값 역대 최고 수준, 데일리NK (2024.09.20.), <<https://www.dailynk.com/20240920-1/>>

3 “북한 재정상 정책성 해임”...김정은 우상화 걸림돌 제거?, KBS뉴스 (2024.07.0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04948>>



도 심각하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북한 주민 가계소득이 2016년 대비 절반 가량 감소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sup>4</sup> 이런 가운데 7월 말 대규모 홍수까지 겹쳐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북한 경제의 이상징후들을 살펴보고 북한 민생을 악화시키는 대내외적 상황과 우려점들, 그리고 기도제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늘어나는 북한 민생의 불안 요소들

북한의 환율은 지난해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대외 무역을 재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은 환율을 반드시 잡으라고 강조했고,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지난해 8월 포고문을 발표하며 허가받지 않은 개인과 기관의 외환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sup>5</sup> 그렇지만 북한의 환율은 안정화되지 못했다. 원·위안화 환율이 먼저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이 그 뒤를 이었다. 상승폭은 드라마틱했다. 연초와 비교했을 때 8월 말 기준으로 북한원·위안화는 50% 이상, 북한원·달러는 두 배 이상의 급등을 보였다. 나라의 수출이 원활하다면 환율 상승을 통해 수출 품목의 가격 하락 효과를 통한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원활한 수출이 막힌 북한으로서는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만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좋지 않은 경제 지표에 더해진 대규모 자연재해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 매체는 올해 7월 북한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인해 주민 5천 명이 고립됐고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만 4천 100여 세대와 농경지 3천 정보, 수많은 공공건물과 시설물, 도로 등이 침수됐다고 보도했다. 신의주와 의주 지역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김정은 위원장이 주택의 지붕들만 겨우 보이는 수해 지역을 보트를 타고 둘러보는 모습에서 이번 수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공식적인 인명 피해 보고를 내는 대신 인명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오히려 남한 언론이 인명 피해를 날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적어도 수천명 이

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에서 함구하고 있는 자강도 지역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은 김정은이 직접 보트를 타고 수해지역을 살펴보고, 수재민을 격려하고 일부 수재민들을 평양으로 옮겨 생활하도록 하는 등 대외적으로 수해를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김정은의 의주군 수해 천막촌 방문 당시 연설하는 열차 단상 옆에 최고급 독일 수입차가 함께 실려있는 장면이나<sup>6</sup>, 천막촌 아이들에게 실제 수재민이 입기에는 무리가 있는 레이스 달린 원피스 선물로 주는 모습<sup>7</sup> 등은 김정은의 행보가 실제 수해 대응보다는 쇼에 가깝다는 평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실제 피해가

큰 자강도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이번 수해의 실질적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자강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절 노출과 언급이 없는 점을 특이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책임을 물어 다수의 간부를 처형한 동향이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9월 4일 밝혔다. 처형된 간부 중에는 피해가 심한 자강도의 노동당 책임비서인 강봉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다.<sup>8</sup> 해당 간부 처형설이 사실이라면, 단순 수해 뿐 아니라 러시아로 수출하던 무기 생산에 큰 지장이 발생한 책임이 묻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해보인다. 실제로 이번 수해로 인해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생산하던 여러 군수공장들이 큰 피해를 본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sup>9</sup> 어떤 이유로든 북한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북한의 수해 피해 규모는 공식 발표에 비해 훨씬 클 것이다.



〈평안북도 의주군의 수해 피해 이재민을 찾아가 백화점 옷을 선물하고(위)는 전용기에서 수재민들에게 연설하는(아래) 김정은 위원장. 애민정신을 내세운 모습이지만 수재민에게 레이스 달린 옷을 선물하고 수해지역에 최신형 마이바흐를 싣고 다니는 모습은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

4 “北 주민 가계소득, 대북 제재-코로나19로 2016년 대비 절반 감소”, 동아일보 온라인 (2024.05.19.),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519/125000533/1>>

5 “환율 잡아” 김정은 지시에도 속수무책…북한 환율 사상 최고, 물가 들쭉, KBS뉴스(2024.05.2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0791>>

6 “수해 천막촌에 ‘최신형 마이바흐’ 싣고 간 김정은…노출은 실수?”, YTN 유튜브 (2024.08.12.), <<https://www.youtube.com/watch?v=fRPOPEgsBEM>>

7 “수해로 다 잃었는데 ‘백화점 옷’ 준들…김정은 ‘애민정신’에 감춰진 것들”, KBS뉴스(2024.08.1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32334>>

8 김정은 보트 타고 수해지역 돌더니…“北간부 무더기 처형한 듯”, 중앙일보 온라인(2024.09.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533>>

9 자강도 ‘미사일 생산기지’, 수해로 큰 타격…군수공장 가동 중단 가능성, VOA (2024.09.08.), <<https://www.voakorea.com/a/7774660.html>>

##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증폭되는 어려움

현재 북한 민생에 부담을 주고 있는 자연재해나 환율 상승은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환율의 경우 국경 봉쇄가 풀리고 외부와의 교역을 재개하게 되면서 외화 수요가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기간 동안 외부와 교역을 차단한 상태에서 시중에 있는 달러를 최대한 흡수하고 물가를 방어하기 위해 달러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해 환율이 정체된 상태로 유지됐지만, 국경 봉쇄가 풀리면서 달러 가치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sup>10</sup> 북부 지역 수해도 갑작스러운 자연 재해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이 이러한 재난과 어려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환율 문제는 북한 당국이 통제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오히려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북한은 환전상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국가 환전소에서 정해진 원달러 환율(8,900원)로 환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정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가 워낙 크다보니 국정 환율로의 환전을 택하는 이들은 적고, 환전상들의 위험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환전이 더욱 음성화되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지방발전 20x10 정책도 환율 상승을 부추긴 원인으로 꼽힌다. 당국이 지시한 공장 건설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외부로부터 자재를 수입해야 하다보니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수해 피해 복구 현장도 단편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치의 연속이다. 북한은 수해지역에서도 김씨 일가 초상화부터 건져서 관리하는 일명 ‘모심사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1</sup> 북한 관련 언론의 보도 뿐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모심사업에 따른 비효율적인 수해복구 상황이 보고되고 있다. 김씨 일가의 모든 사진과 그림, 그리고 관련 사적지의 관리 복구에 최우선으로 나서고 있으며 각 집안에 초상화 상태 점검에 나서는 등 실제적인 수해복구보다도 우상화와 관련된 부분에 더욱 힘쓴다고 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수해 복

구를 명목으로 각 가정과 기관에 수재지원금을 강제로 뜯어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도시지역 가정은 북한돈 5만원씩, 농촌 지역은 3만원씩 의무적으로 수재지원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각 기업소와 기관들, 소학교까지 포함하여 단위별로도 수재지원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부담이 심하다는 전언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이러한 세외 부담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정황이 보도되기도 했다.<sup>12</sup> 수해복구를 위해 전국에서 동원된 돌격대들도 일부 물자를 제외한 식량이나 물자를 현지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미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마당에 돌격대원들이 식량을 도둑질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sup>13</sup>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이 방치되거나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 북한의 잘못된 방향성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북한은 계속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의, 문제있거나 무책임해보이는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그 원인을 단순히 북한 당국의 무능함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최근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방향성의 문제가 커 보인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는 시장을 이용하며 경제를 안정시켰던 북한은, 대북 제재의 확대와 북미 회담의 결렬,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경제 정책 방향을 대규모로 수정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 봉쇄 기간 동안 민간의 식량 유통을 금지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판매소를 통해서만 식량을 구매할 수 있게 했다. 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전과 외화 사용도 통제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가진 외화를 국가가 흡수하고 시장 활동도 다시금 국영 상점 위주로, 무역도 국가가 독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해 주민이 북한 원화만 사용하게 된다면 시장은 힘을 잃고 국가의 경제장악력은 커진다. 식량뿐 아니라 소비재를 국영상점에서만 살 수 있게 하고 국가가 무역마저 독점하면 시장은 사라진다. 나아가 주민이 양곡판매소와 국영상점에서 지출한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기업의

10 북한 달러 환율 고공행진 지속...전문가 “주민 생활고 가중”, VOA (2024.07.18.), <<https://www.voakorea.com/a/7703070.html>>

11 폭우 피해 지원보다 ‘모심사업’ 우선시...“초상화부터 살피라”, 데일리NK (2024.08. 06), <<https://www.dailynk.com/20240806-1>>

12 폭우 피해복구 명목 세외부담 또, 또...주민 불만 고조, 데일리NK (2024.09.24.), <<https://www.dailynk.com/20240907-1/>>

13 북 수해지역 ‘돌격대’ 속식 해결위해 도둑질, 자유아시아방송RFA (2024.08.09.), <[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thievery-08092024090932.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food_international_org/thievery-08092024090932.html)>



대출 재원으로 삼으면 사회주의 금융이 회복된다.<sup>14</sup>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는 민생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코로나 봉쇄 기간 시장 활동의 제약으로 많은 주민들의 소득이 감소했고, 국지적인 기아 상태가 야기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을 기존 3000원대에서 3만~5만원대로 10배 이상 올리면서 임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이 카드로 양곡 판매소나 국영 상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다. 나라에서 식량 구매를 위한 돈을 지급할 태니 시장이 아닌 국가 운영 경제 단위에서 일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모든 돈의 흐름이 당국의 통제 아래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sup>15</sup>

이러한 북한의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의 혼란을 생각하면 이러한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하기 쉽지 않다. 북한의 환율 상승은 결국 북한의 외화난과 직결된다. 그리고 그 외화난은 민간보다는 무역에 나서야 할 공식 부문과 북한 당국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 최지영 연구위원은 북한의 공식 무역이 늘고 외화가 부족해지자 당국이 본격적인 외화관리에 나선 것이 오히려 시장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sup>16</sup> 외화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당국이 시중의 외화를 국가로 귀속시키고자 민간의 환전이나 외화 거래를 막으면서, 이러한 거래가 암시장에서나 이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환율이 상승세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관련해서 이석 KDI 연구위원은 “교역에 동원할 수 있는 외환을 비롯한 여러 자원은 사실상 거의 고갈되어 코로나 상황에서 축적된 최소한의 교역 수요만큼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북한의 경제주체들 사이에 서로가 외환 등 교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극심한 경쟁이 벌어짐으로써 환율 폭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전면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sup>17</sup> 또한 이러한 환율 폭등은 아직까지 외부와의 무역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민간경제주체가 아니라 북한의 국영기업을 비롯한 공식경제부문, 특히 북한 내부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경제주체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북한 당국의 경제적 통제가 이제는 공식부문 내부의 중요 경제주체들 사이에도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으며, “2016~17년의 대북제재로 촉발된 북한경제의 악화 추세가 이제는 거의 경제적으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sup>18</sup>

이번 북부 지역 수해 피해도 단순 재해로만 보기 어렵다. 같은 압록강을 끼고 있는 중국 측의 피해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제물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 사무소장은 북한이 비슷한 양의 비가 내려도 다른 나라보다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sup>19</sup> 압록강 하류 지역의 경우 서해의 밀물 시간과 겹치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못해 홍수가 잦은 지역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95년 압록강 대범람 이후 홍수방지시설을 대폭 강화하였다. 압록강변을 따라 홍수방지문 45곳을 설치하고 철제 빔과 목재로 2.5m의 방벽을 쌓아올렸다.<sup>20</sup> 그렇다 보니 홍수가 발생하자 넘치는 강물은 중국 대신 북한 쪽으로 밀려들어오게 되었고, 이는 북한쪽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 결국 북한의 치수 시설 미비가 홍수 피해를 키운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는 매우 미비하지만 이에 대한 투자 대신 북한당국은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을 벌여왔다. 주택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제공할 당근으로서 아파트 정치의 일환이다. 권력을 지탱하는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선출인단, 즉 핵심 지지 세력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베풀지만, 그 외 지역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 확충에 인색한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수해복구 비용마저도 국가가 책임지기보다는 세외부담을 지워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단함이 얼마나 심한지, 또 북한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중국 단둥 지역에 설치된 홍수방벽 (사진=KBS뉴스)〉

14 김병연, “북한의 보이지 않는 전쟁”, 중앙일보 (2023.10.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8424>>

15 “<북한내부> 파격적인, 10배 넘는 '임금 인상' (1) 국영기업과 공무원의 노임을 일제히 인상... 그래도 월수 4500원 정도”, 아시아프레스 (2024.01.05.),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4/01/nk-economys/wage-increase/>>

16 “[장용훈의 한반도톡] 북한 외환 시장환율 경총...엔데믹 효과 본격화하나”, 연합뉴스 (2024.07.27),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6072700504>>

17 이석 (2024), “2024년 북한경제와 선택의 길”, KDI북한경제리뷰 2024년 7월호, 8.

18 위의 글, 10-11.

19 “북한 수해 악순환, 인프라 부족·산림 황폐화 탓...북한 폐쇄성도 한몫”, VOA (2024.08.17), <<https://www.voakorea.com/a/7745931.html>>

20 북중 피해 ‘극과 극’...“중국측 홍수방지 방벽으로 북한에 더 큰 피해”, KBS뉴스(2024.08.0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29801>>

## 쫓기는 북한과 우리의 기도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북한 당국도 아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여러 미디어 보도나 김정은의 발언들, 그리고 올해 초 제시된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을 보면 주민 생활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만 정책적 우선순위가 정권 유지와 핵보유에 있다보니 이러한 어려움에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러시아와의 교류로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은 군수물자를 제외하고는 식량과 에너지 뿐이다. 경제 발전과 산업 운영을 위한 여러 물자와 소재, 기술의 공급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양국의 협력은 더욱 제한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북한 경제가 한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리고 러시아가 그 해답이 되지 못한다면 북한은 결국 미 대선 이후 출범할 새로운 미 행정부와와의 핵협상을 통해 모종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하는 형편이다.


악화되는 국가 경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고립을 선택하고 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서도 북한은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지원 뿐 아니라 중국이나 심지어 러시아와 같은 우방의 지원도 (비록 후에 수해물자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대외적으로는 사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의 리더십에 손상 없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도와 수해 지원을 받으려 하다 보면 수해 피해 규모가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주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의 이미지 만들기에 열중하며 물자의 부족에도 외부지원은 거부하는 북한의 행태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결국 개혁 개방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실 북한은 과거 동유럽이나 구 공산권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개혁 개방에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개혁 개방을 선택했을 때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의 효과를 거두기 유리한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고, 해당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주변국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 있다.<sup>21</sup> 그렇지만 북한은 굳이 어려운 길을 고집한다. 인류 역사의 많은 지역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동력으로 작동해왔던

독재적 편집증(Dictatorial Paranoia)<sup>22</sup> 현상이다. 김정은 우상화에 열을 올리면서 한류 문화 확산에는 과도하게 대응하는, 나라의 올바른 경영이나 국민들의 안위가 아닌 외부의 악영향만을 우려하는 북한 당국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특별히 대외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기도하자. 인명피해가 없다는 북한의 단언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압록강 유역 뿐 아니라 두만강 유역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로 중국 체류 탈북 여성들 중 가족의 부고를 듣는 사례도 여럿 보고되고 있다. 수재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외부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이 원활하게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당국의 정책에 의해 시장 활동이 위축되고 환율이나 물가가 계속적으로 불안해질 때 가장 큰 피해는 지도계층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입게 된다. 북한의 정책 실패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북한의 방향성이 바뀌도록 기도하자. 자신의 진정한 생존의 길은 억압이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 돌이킴에 있음을 하루 속히 깨닫도록 북한의 위정자와 지도층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아무쪼록 현재의 우려가 하루 속히 해소되고 무고한 희생과 억압이 중단되도록 교회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21 이석 (2024), 앞의 글, 12-22.

22 편집증은 심각한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자신이 주변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병리적인 의심을 고집하는 이상심리학적 상태를 일컫는다. (출처: Wikipedia)

# 최근 북한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

임을출 (경남대 교수, 극동문제연구소)

## 1. 홍수와 건설, 그리고 민생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늘 그래왔듯이 녹록치가 않아 보인다. 코로나 팬데믹,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국가주도성이 강화된 경제정책 등 내부 정책 변화로 인해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민간 영역에서의 장마당 활동과 무역을 제한하면서 농촌개발, 지역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향후 20년 동안 20개 시, 군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이 정책을 ‘10년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말 신의주 등 중국 접경지, 압록강 유역에서 큰 물난리가 났다.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드러난 것만 수천 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이 겪은 최악의 수해 중 하나라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신문은 8월 31일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 무려 4100여 세대에 달하는 살림집(주택)과 근 3000정보의 농경지를 비롯해 수많은 공공건물과 시설물, 도로, 철길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도했다. VOA는 8월 28일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의주군 수해 발생 지역에 총 면적 67만  $m^2$  가량의 공터가 생겼는데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100개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도했다. 공터의 규모로 미뤄볼 때 가옥 수천 채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추정 가능성이 있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측에서는 구체적인 숫



〈통일부는 8월 1일 수해를 입기 전인 올해 5월 8일 북한 압록강 위화도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북한 위화도와 인근 침수 전후 비교 이미지. (사진=통일부)〉

자는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8월 1일 이번 수해로 “북한에서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위화도 전체, 의주군, 자강도 만포시까지 침수가 식별됐다”고 밝혔다.

사태가 심상치 않았음은 김정은 위원장이 7월 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큰물 피해 현장을 방문한 데서도 감지되었다. 김 위원장은 신의주로 가는 전용 열차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등에서 발생한 홍수에 대비하지 못해 큰 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묻어 사회안전상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를 교체했다. 김 위원장은 9.9절(북한정권수립일)에 당·정·군 간부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압록강 하류의 평북도 지역과 자강도·양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혹심한 큰물(홍수) 피해가 발생해 국가적인 사업에 지장도 받고 방대한 역량이 투하되지 않으면 안 됐다”고 자인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자연 재해 대응에서의 허점과 공간을 새롭게 투시하고 앞으로 불가역적인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독촉했다. 이에 따라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용 자



원과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양새를 연출해왔다. 평안북도 의주군 피해지역에서는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정황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다. 의주군 뿐 아니라 자강도 만포시에서도 토지를 고르는 정지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해 발생 시점이 7월 말이란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여 만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된 셈이다.

문제는 북한 전역에서 대규모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수해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많은 노동력, 건설자재와 설비를 자체적으로 제때 보장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전국 각지에서는 각종 건설 사업이 우후죽순으로 펼쳐지고 있다.<sup>1</sup>

평양에 5년간 매년 1만 세대씩 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 4년 차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듬해부터는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에 따라 각지 농촌에 살림집을 짓는 사업을 3년째 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는 향후 10년간 매년 20개 시, 군에 공업공장을 짓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현재 각지에 공장 건설이 한창이다. 지난 7월에는 또 수해 발생 지역인 신의주시와 의주군에 4400여 세대의 살림집 건설 사업이 추가됐고, 최근에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공장뿐 아니라 병원과 과학기술보급거점, 양곡관리시설도 건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관광 재개를 앞두고 삼지연시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신포시에 바닷가 양식장 건설도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로 올해 중점사업으로 떠올랐다. 건설 사업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는 물론 국가와 사회생활의 발전이 중요하게 건설물의 실체로 표현”된다고 강조한다.<sup>2</sup>

건설은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인 만큼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과시용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건설은 대부분 동원된 북한 군인과 청년들의 무보수 노동력에 의존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건설사업이 많아질수록 이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홍수피해는 일반 주민들에게 이만저만한 고역이 아니다. 특히 생계를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는 여성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데일리엔케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수해 복구에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운영시간까지 축소하면서 주민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

해 피해복구를 명분으로 한 시장 운영시간 축소 조치가 8월에 이어 9월에도 지속되자 주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3</sup> 7월 말까지만 해도 공식 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8시간 가량 운영됐지만 ‘낮시간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해 복구 전투에 동원해야 한다’면서 당국이 갑작스럽게 시장 운영시간을 축소한 것이다.<sup>4</sup>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장 운영시간 축소 조치가 장기화될수록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가 공급이나 생활비(월급)만으로 살아가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는데, 시장 운영시간 축소가 장기화되면 생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니 불안과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날씨가 좋아 다소 개선된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암울하다고 봐야 한다. 국가에서는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민간 시장 대신 국영 상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물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까 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중국과의 무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2020년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가 8월 말 공개한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북·중 교역액은 1억 4475만 달러(약 1932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1억 7845만 달러(약 2382억원)보다 18.8% 감소한 수치다. 북·중 교역은 지난 4월 1억 9399만 달러(약 2589억원)를 기록한 뒤 5월(1억 8134만 달러, 약 2420억원)부터 3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다. 더구나 최근 북·중 간 이상 기류가 다양한 측면에서 표면화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접경 지역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밀수 행위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공안·해관·해경을 모두 동원해 북한 밀수품의 상당량을 압류했다. 단속은 육로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해상 밀수까지 범위를 넓혀 이뤄지고 있다.<sup>5</sup> 밀수 단속은 당연히 주민들의 생계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요컨대 주민들의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고, 평양 같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도 여전히 좁혀지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무역 및 건설 활동에서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보여지지만 무보수 동원경제에의 과도한 의존, 빈번한 자연재해와 만성적인 자원 부족, 취약한 인프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와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

1 “북한, 각지서 건설, 건설, 또 건설…”지금 어디서나 시멘트 요구, 『뉴스1』, 2024.9.12.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에 즈음하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4.9.10.

3 “전달 이어 이달에도 시장 운영시간 축소…주민 불안 확산”, 『데일리엔케이』, 2024.9.10.

4 “수해 복구 나서라며 시장 운영시간 축소…주민 생계에 직격탄”, 『데일리엔케이』, 2024.8.23.

5 “中, 김정은 ‘1호품’ 밀수 적발…‘돌려달라’ 北 요구 거절했다”, 『중앙일보』, 2024.9.13.



도 주민들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듯하다.

## 2. 쌀값과 환율 상승세 지속

서울평양뉴스가 9월 1일 기준 북한 평양시와 양강도 혜산시, 강원도 원산시, 황해북도 사리원시 장마당 물가를 조사해 보름전과 비교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곡물류 가격을 보면 쌀(1kg)은 평양 6,300원(보름전보다+200원), 혜산은 6,600원(+100), 원산 6,200원(+300), 사리원 6,150(+150)으로 2~5% 올랐다. 옥수수(1kg) 가격은 평양에서 2,700원, 혜산은 3,500원, 원산 2,710원(+110)으로 올랐다. 식용유(1kg)는 평양에서 19,000원(+1,100), 혜산 18,200원(+1200)으로 각 지역별로 5~7% 급등했다. 설탕은 평양 11,800원(+600), 원산 1,2000원(+500)으로 오르는 등 전지역에서 4~7% 올랐다. 밀가루(1kg) 가격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8월에는 가격이 내렸지만 평양 8,400원(+400), 사리원 8,500원(+400)으로 최고 5% 올랐다. 휘발유(1kg) 가격은 평양 16,700원(+700), 혜산 17,000원(+700) 등 최고 4.3% 올랐고, 경유는 평양 15,100원(+900), 사리원은 15,200원으로 6% 전후 상승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원유 공급량이 줄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해로 인한 채소류 가격이 올라 배추(1포기)는 혜산 1,600원(+400) 사리원 1,400원(+400)으로 40%까지 폭등했다. 달리는 수해로 인한 건자재 구입 수요 증가와 단속 강화로 평양 13,800원, 혜산 12,000원 등 7~10%로 큰폭으로 올랐다. 6~7월 올감자 수확과 밀보리 수확으로 주춤하거나 하락하던 곡물가도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압록강 유역의 수해복구가 지연되면서 중국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 사이의 화물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아직도 평안도와 자강도, 양강도 일부 지역에서는 열차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해 유통이 마비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쌀값과 달러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장마당에서 쌀 등 일부 곡물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달러의 폭등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평양뉴스가 9월 15일 기준 평양시와 양강도 혜산시, 강원도 원산시, 황해북도 사리원시 장마당 물가를 조사한

결과 곡물류 가운데 쌀값(1kg)은 평양 6,300원(9월 1일 기준)→7,000원, 혜산 6,600원→7,300원, 원산은 6,200원→6,800원으로 올랐다. 다만, 옥수수(1kg)는 평양 2,700원→2,500원, 사리원 2,650원→2,480원으로 소폭 내렸다. 달러화는 소폭 하락해 평양 13,800원→13,500원, 혜산 14,000원→13,500원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환율 상승은 지난 2월 중순부터 계속되고 있다. 내림세를 보이던 쌀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도 공급이 부족한데다 환율 상승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율 상승은 내부 단속에도 다소 영향이 있지만, 외화 보유 부족과 함께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로 수출이 줄면서 외화난이 심화된데다 당국이 달러화와 위안화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 3. 김정은 정권의 대응과 향후 전망

북러 간에 전방위 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은 민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목할 만한 내용은 러시아가 북한에 매년 염소 1천 마리씩 3년간 수출하기로 한 점이다. 러시아가 1년에 염소 1000마리씩 북한에 공급하겠다는 3년짜리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러시아 일간지 '베도모스티'를 인용해 8월 30일 보도했다. 식량 자원이 부족한 북한에서 염소는 고기와 우유를 제공해 주민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염소 수입은 우유제품 생산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육아중시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측은 북한에 다른 유형의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북러 간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북한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대규모 홍수피해에 따른 체제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 북한체제 위기가 급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9.9절(북한정권수립기념일) 기념 연설은 그가 현재 갖고 있는 정세 인식, 현실적인 고민과 더불어 위기 타개책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7</sup> 우선 연설에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간부들과 주민들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최대한 견인하고 내부 결속을 더욱 강화시키고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핵무력건설정책

6 "[北 물가] 전반적 물가 폭등세..."수해복구 지연 유통망 마비, 달러가격 상승, 『서울평양뉴스』, 2024.9.2.

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에 즈음하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로동신문』, 2024.9.10.

## 경제 문제로 본 북한인권 실태

이 상 용 (데일리엔케이 AND센터 디렉터)



〈북한정권수립일(9.9절)을 맞아 연설을 진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 위원장이 9.9절에 연설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관철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와 민생을 우선시하는 기조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방력을 끊임 없이 강화하면서도 지방발전에 주력해 주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연말총화를 앞두고 경제건설, 주민생활 향상 관련 목표 관철을 위한 경제지도 일군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었다.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이로 인한

불평불만이 체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실제 생활이 체감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제시한 지방에서의 생산물 유통 활성화, 기업들의 독자적 생산경영활동 보장,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실질소득 보장, 보건의료교육서비스 개선 등이 주민생활 개선과 직결된 문제들이고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다. 지방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개선은 지금 건설중인 20개 시,군에 건설중인 지방공업공장이 제대로 기능하느냐가 좌우할 수도 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계획의 성과가 김정은 정권의 현재는 물론 미래 운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은 향후 상당 기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방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기도 하다. 다만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건설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안보딜레마와 함께 부족한 자원투입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딜레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북한 곡창지대라고 할 수 있는 황해남도에서 채 여물지 않은 벼를 훔치는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sup>1</sup> 특히 붙잡힌 주민들로부터 증기로 여물지 않은 벼 이삭을 적당한 시간 동안 찢다가 그늘에서 말리면 도정한 것처럼 된다는 비법 아닌 비법까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방법까지 찾아냈다는 사실에 오히려 인민경제의 낙후된 현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다면 북한 경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문제에 허덕이고 있다는 평가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셀프 봉쇄다. 비과학적인 인식에 따라 단행된 무역 폐쇄로 원자재 수입이 감소됐고, 이에 따라 곳곳에서 공장기업소가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촉발됐다. 또한 이는 자연스럽게 시장 위축으로 연결됐다. 즉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줄어들게 되니 앉아서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도 줄고, 이를 찾는 주민들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총체적 난국 상황이 펼쳐진 셈이다.

이는 단순히 일부 상인들의 주머니 사정 악화로만 끝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면서 구매력도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이는 식량난으로 연결된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의 밥상에 많이 올라오는 음식이 강냉이(옥수수)국수인데, 배추 같은 남새(채소)를 넣고 국수가 풀어지도록 끓여 양을 많게 한 다음 이를 정도 이 국수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sup>2</sup>

1 선화 기자, 『데일리엔케이』, “채 여물지도 않은 벼 훔쳐가는 사건 잇따라…이유 들어보니…”, 2024년 9월 15일

2 장슬기 기자, 『데일리엔케이』, “北 시장 곡물가 상승세…수해 이후 주민 식량난 심화하나”, 2024년 8월 23일





이렇게 되면 원래 못 먹고 살았던 최하층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장 위축에 따라 시장을 통해 먹고 살았던 인력거꾼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도 먹고 살만한 수단이 갑자기 사라지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은 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농촌이나 산골 지역에서 주로 아사 사태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sup>3</sup>

하지만 북한 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부 기관에 절량 세대(곡물과 돈이 떨어진 세대)를 장악하라는 지시만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심각한 식량난에 대해 당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는 건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만 하다 보니 힘없는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 당국 대처로 촉발된 문제

특히 작금의 식량난은 당국의 대처로 촉발됐다는 점을 우리는 지적해야 한다. 일단 식량 판매, 유통, 생산에 북한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당국은 아마도 식량의 불법 유통, 생산량 축소, 매점매석, 사재기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당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당연히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서 곡물을 팔아온 상인들의 불만은 항상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미 시장을 통해 먹고 사는 즐거움을 맛 본 주민들은 당국의 고루한 정책 때문에 이 같은 식량난이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현장에서 감시자나 단속자에게 대드는 주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의 여전한 과도한 시장 개입도 문제다. 얼마 전 발생했던 수해 피해를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북한 당국이 인력을 총동원하기 위해 시장 운영까지 제한하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실제 올 여름 홍수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평안북도의 경우 시장 운영

시간이 기존 하루 8시간에서 3시간 이하로 축소됐고, 낮 동안 수해 복구에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은 오후 5시 이후에나 문을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sup>4</sup>

이에 따라 수해로 인해 북중 국경 지역 무역과 밀수가 위축되면서 수입품이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어 시장이 열려도 판매되는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공급량도 평소보다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북한 당국 정책이 오히려 인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식량 문제에 있어 북한에서 뿌리 깊은 ‘차별’ 문제를 빼놓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2021년 공화국 창건일(9.9절) 73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명절용 식량을 공급했는데, 공급량 부족으로 지방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sup>5</sup>

예전보다는 대폭으로 식량을 수입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밀가루 등 곡물을 들여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공급 대상은 여전히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고위층이라는 뜻으로 들린다. ‘평양 공화국’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 수치로 본 문제점

북한의 경제난은 수치로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일단 가장 중요한 쌀 가격은 9월 중순 기준 평양의 한 시장에서 북한산 쌀 1kg은 북한 돈 6300원에 거래됐다.<sup>6</sup> 예년 9월 중순경 쌀값과 비교하면 현재 북한 시장의 쌀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 발생 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 9월 중순에 비해 무려 1600원(9월 11일, 4700원) 가량 상승한 수치다. 시장에 가면 쌀은 있지만 가난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차이로 다가오기 때문에 ‘식량난’ 문제가 더 심화됐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북한에서 대체 곡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옥수수 가격 상승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 9월 15일 평양의 한 시장에서 옥수수 1kg은 3200원에 거래됐는데, 코로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 9월 중순 조사된 수치(1kg, 1370원)와 비교해 볼 때 2000원 가량 상승했다.<sup>7</sup> 이처럼 쌀값에 비해 옥수수 가격이 폭등한 건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옥수수 가격이 2배

4 선화 기자, 『데일리엔케이』, “수해 복구 나서라며 시장 운영시간 축소…주민 생계에 직격탄”, 2024년 8월 23일

5 이채은 기자, 『데일리엔케이』, “9·9절 맞아 10일치 식량 ‘공급’…지방은 未수급 세대 ‘수두룩’”, 2021년 9월 15일

6 데일리엔케이 북한 시장 동향 자료 참조, “<https://www.dailynk.com/market/>”

7 데일리엔케이 비공개 북한 시장 동향 자료

3 김채환 기자, 『데일리엔케이』, “황해남도 농촌서 아사자 속출…전국적 봉쇄에 식량 못 구해 ‘참극’”, 2022년 5월 31일

넘게 상승했다. 이런 점을 볼 때 주민들의 구매력은 하락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쌀을 사거나 옥수수를 사 먹을 돈도 없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 부분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다.

## 제언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화 유도에 관한 내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외부에선 북한의 경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최근 제출한 보고서<sup>8</sup>에 따르면, 북한은 주민의 이동권과 일할 권리, 식량권 등을 옥죄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살몬 보고관은 또 북한이 주민의 생계 수단인 상업 활동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 크게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필자와 일치된 의견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핵, 미사일 도발로 고립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남한 정부는 계속해서 북한 당국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하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인데, 북한 당국의 반인민성이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국제사회가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대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당국은 ‘자력갱생’ 정책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한다. 이번 수해 피해 지원에서도 볼 수 있듯 북한의 나 혼자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무모함은 인민들만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외부에는 ‘NO’를 외치고선 내부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전형적인 ‘세외부담’ 정책은 하루 빨리 근절돼야 한다. 심지어 폭우의 직접 피해자인 양강도 혜산시 주민들에게 홍수에 떠밀려간 독과 철조망을 복구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자재비를 강요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sup>9</sup> 당장 자기 집 피해 복구에 바쁜 주민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부담을 주니 당연히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문제가 됐던 ‘애국미 헌납운동’도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북한 당국은 북한 농근맹중앙위원회 간부를 방송에 출연시켜 “(애국미헌납운동과 같은) 사상교양 사업을 보다 혁신적으로 진행해 농업 근로자들이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도록 하는데 자신

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선동하기도 했다.<sup>10</sup> ‘애국미 헌납운동’은 정권에 대한 충성 차원에서 1940년대 처음 등장했는데, 아직도 구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쇼’는 펼쳐내고 실질적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의 보여주기 쇼의 끝판왕은 ‘수재민 1만 3천 명 평양 소환’을 들 수 있다. 물론 선대(先代) 때 당장 혈벗고 나왔어도 국가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놀라운 조치긴 하다. 또한 북한 당국이 이재민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들에게 국가체계의 보호와 인민대중 사회주의 체제 속의 지원을 강조하는 정치적 선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특히 주민들의 마음을 노린 눈속임 전략이라는 점을 꼬집어야 할 것 같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수도 평양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탐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최고지도자가 부여한 것이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평범한 지방 사람들과 아이들의 머리 속에 수령, 국가, 당의 처음 있는 혜택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는 의도다. 종합적으로 보면 평양 탐방 ‘쇼’는 주민들에게 국가의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겠다는 의도로 단행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보여주기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김정은 정권을 유도하는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북한은 수재민 1만 3천여 명의 평양 방문을 진행했다. 사진은 지난 8.15일 평양에 도착한 수재민 어린이들을 만난 김정은 위원장〉

8 보고서 원본 자료 참조, “<https://seoul.ohchr.org/ko/node/588>”

9 은설 기자, 『데일리엔케이』, “폭우 피해복구 명목 세외부담 또, 또…주민 불만 고조”, 2024년 9월 7일

10 최두희 기자, 『YTN』, “통일부 “北 식량난 심각한 상황”...北, UN에 원조요청도”, 2023sus 2월 15일



# 북한 주민의 먹을 권리의 지역 차이에 대한 소고

조 충 희 (북한학 박사, (사)굿파머스 연구소 소장)

## 1. 들어가며

내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랍고 부러웠던 말은 “삶의 질”이다. “생존(生存)” 자체가 어려워 탈북을 강행하여 대한민국에 오니 먹는 것만이 아닌 삶의 질을 논의하는 것이다. “나도 이제는 최소한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좀 더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살면 된다.”라는 생각과 아직도 생존의 갈림길에서 헤매는 북한의 친지들 생각에 마음이 아렸다. 북한도 먹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의식주를 식의주”로 바꾸면서까지 노력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 북한에서 주민들의 배부른 삶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행복지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은 1970년대 삶의 질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고 한국의 경우 60년대 이후 경제 중심의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1인당 GNP 1만 달러를 달성하여 물질적 부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생활의 질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즉 식량문제는 해결하고 교통, 환경의 질, 각종 범죄의 감소, 여성, 어린이, 노인, 가족 간 유대 등 문제들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현재 북한 주민의 삶은 물질적 부와 정신적 욕구가 충족되는 바람직한 복지형이 아닌 생존형이다. 그 이유는 북한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못하여 양적인 관심으로부터 질적인 관심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주민의 먹을 권리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지역 사회 혹은 지자체 단위

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은 충분한 식량의 구매와 소비 차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도적 특성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신들의 일상에서 “평양 사람보다 못한 삶”에 대한 생각은 충분히 인지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sup>

폐쇄된 북한의 현실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식량의 구매와 소비 수준을 측정해 내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북한 주민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준 차이 문제에 대한 고려를 통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으며 사고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북한의 지방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식량부족을 여러 가지 변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차이로 분석하였다.



〈2016년 9월 16일 함경북도 무산지구 홍수 피해 현장에서 철도 선로 복구작업에 나선 청년돌격대원들의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 2. 문제 제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인간의 삶을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개념이다. 여기서 질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이 양적 욕구를 충족한 상태에서의 상대적 개념으로 대단히 추상적이다.

삶의 주관적 만족감 혹은 행복이라는 감정은 물질적 측면은 물론 비물질적인 인간관계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질적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주관적 만족감이나 행복지수를 일반화할 수 있을까?

2011년까지 북한의 평안남도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주민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북한에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17살부터 약 10년간 ‘속도전 청년돌격대’라는 조직에 속하여 공장, 도로, 철도, 철도 전기화 공사에 동원되어 일한 그의 행복한 순간에 대한 기억은 “춥고 배고프던 어느 날, 저녁으로 차례진 붉은 강냉이 200g을 순간에 먹어버리고 배가 차지 않아 할 때 누군가가 건네준 옥수수 한 줌을 더 먹었을 때”이었다고 했다.

북한에서 철길 공사장에 동원된 17살 돌격대원이 다른 사람보다, 한 줌의 붉은 강냉이를 더 먹었을 때의 행복감을 고급 승용차를 타고 커피 맛을 비교하는 우리

<sup>1</sup> 최근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지방 주민에게 평양보다 못한 지방의 경제를 개선한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공식화하여 지방공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은은 정책 수립 단계부터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전당, 전 국가적인 정책으로 되어 있다. <<https://eiec.kdi.re.kr>>

가 이해할 수 있을까? 행복감의 정도는 각각의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서 경험되어지는 느낌으로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행복감의 기초 출발 기준은 배부른 상태를 보장하는 소득수준이다. 소득수준별로 행복 및 삶의 만족도 평가(1 매우 부정적, 3 보통, 5 매우 긍정적)의 평균점수를 보면 개개인의 차원에서 일정 소득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행복은 소득수입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월 가구소득 1,000\$ 이하부터 5,000\$까지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주관적인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 평가가 일관되게 높아진다는 자료도 있다.<sup>2</sup>

그렇다면 월 소득 30\$ 이하로 1일 1달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의 경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의 기준에서 배고픔이 가져다주는 고통의 크기와 붉은 강냉이 한 줌이 주는 행복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까?

생명체로서 인간의 삶은 물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경제 활동 과정에 이루어지는 소득을 통하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일반 주민은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직된 사회적 분위기로 제도나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성취감, 애정, 친밀감, 충성도 등과 같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만 강요당하면서 생명 유지 자체가 위험한 수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평양과 지방, 평지와 산간 등에 따른 식량 배분의 차이가 심각하다.

북한에서 식량의 배분 정도는 상대적이다. 즉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과 지역 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따라 다르다. 북한 주민의 식량 배분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을 둘러싼 제도적 지리적 환경요소의 차이에 대하여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하는가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

### 3 현황분석

인간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권리는 먹을 권리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생존 과정인 정신, 육체적 활동이 에너지를 보충하고 소비하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먹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득을 식량 소득이라 표현할 수 있다.

북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945년 해방 초기 약 천만 명에서 지금은 2,500 만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식량의 수요는 2배로 증가하였다. 곡물 생산에 필요한 경지면적은 그대로이고 경직된 농업정책으로 곡물 생산량 증가가 따라

서지 못하여 많은 주민이 식량의 양적 질적 부족으로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경제난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환경의 불안정, 국제사회 제재와 북한 당국의 봉쇄정책으로 인한 농업생산 환경의 열악성으로 생산성이 크게 둔화하여 북한 주민들은 매년 기근을 면치 못하고 있다.<sup>3</sup> 거주지역 농업생산력의 차이는 지역 주민의 식량 배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월 소득의 대부분을 식량 구매에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 연관된다.

거주지역 곡물 생산은 식량 소득과의 연관 속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하고 충분한 식량에 정기적으로 영구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은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세상”에서 살게 해준다는 북한 노동당의 약속 중에서 유독 해결하지 못한 것이 이밥에 고깃국 먹는 것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한 ‘계획경제와 자력갱생’은 기와집에서 옷은 입게 하였지만, 먹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식량자원에 정기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지역적 차이이다. 현재 언론에서 이야기되는 북한지역의 식량난은 북한 전체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하여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가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주식으로 이용되는 주요 곡물인 쌀, 옥수수 가격에서 량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등 북부 내륙지역의 평균치가 평양,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도 지역보다 높거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해산, 회령, 무산, 청진 등 량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지역의 쌀 1kg 가격은 6,500원이지만, 평성, 신의주, 사리원, 해주 등 평안도, 황해도 지역의 쌀 1kg 가격은 5,800원으로 10.8%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러가지 해석상의 요소가 있지만 적어도 식량 이용에서는 곡물 자원의 지역적 편차에 따른 내륙지역 주민과 서해평야 지역 주민과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난 2018



2 World Happiness Report 2017; Happy Platnet Index 2016 <<https://hrcopinion.co.kr>>

3 조충희, “북한 주민의 식량권: 곡물생산과 공급 그리고 소비의 지역차이를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23) p115.



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나의 고향은 량강도 삼수군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시집가기 전까지 23년 동안 감자밥(감자와 콩 그리고 약간의 보리쌀을 넣어 지은 밥)만 먹고 살았다. 당시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주민 모두 그렇게 먹고살았다. 생일이나 명절날 감자에 콩을 넣고, 여기에 기장 쌀을 넣으면 최고의 특식이었다. 량강도에서도 척박한 산지로 예로부터 사냥이나 임산물 채취, 화전을 일구며 목숨을 부지한 “정배 살이”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서 이밥을 먹는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모든 연줄을 총동원하여 황해도 송화 출신 군인 국경경비대 청년에게 시집 보냈다. 못 살아도 내 고향이고 부모 형제,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무섭기도 했지만, 이밥을 실컷 먹을 수 있는 황해도 별방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있었다. 사실 량강도 처녀들의 꿈은 백암령을 넘어 쌀이 많이 나는 별방으로 시집가는 것이다.<sup>4</sup>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에서 식량자원 이용에 대한 불평등을 비교해 보면 서해안 평야 지역인 평안도, 황해도 평양과 그 주변 대도시지역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일 식사 횟수에도 서해평야 지역과 동해안과 북부 내륙지역은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북부 지역 주민들의 1일 평균 1.3끼를 먹는다면 서해평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1끼로 이는 저소득층이라고 하여도 식량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큰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량자원 접근성에서 지역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생산성의 차이 열악한 유통 기반에 의한 식량자원 배분 불평등으로 북부 내륙지역 저소득층의 곡물 이용이 수요보다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5</sup>


그러면 북한 주민의 식량 배분 불평등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제도의 경직성과 폐쇄적인 자력 경제에 있지만, 현실적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로 토지 분포의 특성에 따른 식량으로 이용되는 농산물 생산량의 지역적 차이이며 둘째로 부족한 식량자원 공급 방식의 경직성에 따른 정기적·안정적 접근의 제한에 있으며 셋째로 다양한 식량 소비문화의 부재에 있다.

4 북한이탈주민 A의 증언에서

5 조총희, “북한 주민의 식량권: 곡물 생산과 공급 그리고 소비의 지역차이를 중심으로”『수은북한경제』(서울: 한국수출입은행 2023) p115.

## 4. 나가면서

북한 주민도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삶의 질이 개선에 접근하려면 첫째로 북한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의 경제적 처지가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 시장이 성장하여 1인당 GNP가 5천 달러 정도는 되어 사람들의 생각이 빈곤 등의 물질적인 가치로부터 다양한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래야 환경, 인권, 생활의 민주주의, 자기 개성, 자율성, 사회복지 등 다양한 지향들이 사회적 필요로 등장할 할 수 있다. 둘째로 시민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노동당과 그 하수인인 정부가 독점하여 만들어내는 선전용 사회지표로 삶의 질을 측정하지 말고 시민단체가 객관적으로 만들어낸 지표들에 의존하여 사회적 의미를 만들게 해야 한다. 즉 시민 사회출현으로 국민이 정치, 사회적으로 수동적인 현 상황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상태로 진화하는 단계에서 삶의 질을 논의할 수 있다.

셋째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차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출범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91년 지방 의회가 만들어지고 1995년 기초자치단체의 장까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산하 각 도, 시(군) 지방 의회가 있지만, 노동당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지방 인민위원회에 완전한 자율성을 주고 제대로 된 지방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지자체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1)

김 열 매 성도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사6:13)

저의 증조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해방 전, 함경북도 경흥군의 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났지만 광복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전쟁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매일 공산당원들이 교회의 목사들을 끌고 간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실체는 어느새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시무하시던 교회 바로 문턱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 날도 증조할아버지께서 교회에서 돌아오셔서 “오늘은 XX교회 XX목사님이 끌려가셨다.”라는 소식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피신을 권유했지만 할아버지는 말없이 잠자리에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그날 밤... 공산당원 수 명이 저희 집에 쳐들어와 증조할아버지를 끌고 갔습니다. 모두가 자고 있던 그 밤에 집을 습격한 그들은 불을 켜지 말고 다들 누워있으라고 명령했다고 할머니는 회상하셨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 일어서라!”라는 그들의 고함 소리에 증조할아버지께서 일어나셨고, 겹옷 저고리를 걸치신 채로 끌려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증조할아버지

께서는 그곳 사회 강가에서 총살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북한 지역에 계셨던 목사님들께서는 그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박해를 피해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할머니를 비롯한 남겨진 가족들은 온성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외가 쪽도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외가는 본래 평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평양에 있던 상당히 규모 있는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1951년도 생으로 전쟁 중에 태어나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 어머니를 임신하시고 막달쯤에 산통이 오기 시작하여 평양에 있는 산원으로 가실 때의 일입니다. 병원 마당에 들어서려고 할 때, 갑자기 비행기들이 날아들면서 폭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병원 내에 있던 선생님들과 환자들이 마당 옆에 있는 방공호로 들어가는 것이 보여 외할머니도 급히 몸을 숨기려고 방공호로 향했는데, 문 앞에 섰을 때는 이미 방공호 문이 닫혀져 있었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는 열어주지 않았



다고 합니다. 폭탄이 떨어질까 다급한 마음에 외할머니는 주변에 움푹 파인 곳을 찾아 몸을 숨겨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위를 날던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방공호 바로 위에 포탄을 떨어뜨렸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밖에 계시던 할머니는 목숨을 건지셨지만 날아오는 파편에 왼쪽 손목을 관통당해 저희들이 자라면서 까지도 그 손을 쓰시기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폭격과 함께 저의 어머니가 태어나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그렇게 태어난 어머니의 이름을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뜻을 담아 지으셨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북한 당국이 성분 조사를 벌이며 기독교인들을 추방할 때, 저의 외할아버님도 1958년도에 평양에서 추방되어 함경북도 온성의 어느 탄광 마을로 추방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외할아버지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서, 또 다른 타 지역에서 추방되었고 함께 추방되어 올라온 사람들끼리 모여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켜오셨고 저의 어머니도 그런 환경에서 십일조 심부름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셨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일하시고 모으신 돈에서 십일조를 어김없

이 따로 떼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관하셨던 십일조를 종이봉투에 담으시고 저의 어머니를 부르시면서 ‘애야, 이것을 아무데 있는 아무개 할머니 집에 가져다 드리고 오라’하시면 어머니는 다녀오라는 집까지 심부름을 다녀오시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경로로 온성으로 오게 된 두 믿음의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 또 하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셨고 저와 저의 형제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에는 이미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였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따라 “나뭇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뜻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큰 솥에 동지팔죽을 한가득 만들어서는 아이들과 혼자 사는 독거인들에게 나눠주시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희 할머니와 부모님은 꼭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나눌 것이 있으면 이웃들과 나누고자 애쓰셨습니다. 한번은 저희가 살던 동네에 딸만 다섯인 가정이 있었는데 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희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딸이 다섯인 아빠가 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너무 배고파 왔어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꼬부라진 몸을 가누고 일어서셔서 그분의 손을 끌어 방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상 위에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많이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땀을 줄줄 흘리면서 식사하시던 그분의 모습도 생각납니다. 이렇다 보니 신앙을 숨기며 생활하는 우리 가족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의 부모님들을 보



고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 같다’며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섬김과 나눔을 베푸는 사람들은 예수쟁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꼬리표가 달린 까닭에 우리 가족은 본의 아니게 주변의 감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예수쟁이 같다며 의심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종종 “아무개도 옛날에는 세례교인이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산다.”는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양장 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옷을 지으러 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옷이 맵시도 나고 편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군급 일꾼들이 김일성을 모시고 행사하는데 입을 옷을 짓기 위해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매일매일 손님들로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 다. 직업의 특성상 사람들은 우리 집을 보며 항상 “저 집에는 돈이 킬로로 있을거야”라고 지레 짐작하곤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돈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저는 집에 쌀이 충분히 있어도 쌀밥을 해주지 않으시는 할머니가 내심 서운했습니다. 새하얀 이밥을 먹고 싶은데 항상 옥수수 강냉이와 섞어서 밥을 해주셨습니다. 여름이 되면 할머니는 쌀독에 있는 쌀이 벌레가 나지 않도록 앞마당에 커다란 비닐 박막을 펴고, 그 위에 쌀을 퍼서 말리시곤 하셨습니다. 잘 말려진 쌀을 다시 쌀독에 넣으시면 서도 손주들이 먹고 싶어 하는 이밥은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밥을 먹을 수 있을 때는 집에 손님이 오실 때뿐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시는 믿음의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날 저녁이면, 하얀 이밥과 집에서 키우던 닭을 잡으셨고, 잘 보관해두었던 찹쌀로 찰떡을 만들어 함께 나누셨습니다. 저희들은 집에 손님이 오시는 날에는 잔치 분위기였기에 그날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신 손님들이 하룻밤을 머물고 가실 때면, 아버지는 양복을 지어 모으셨던 돈을 차비로, 생활비로 성도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저희에게도 늘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돈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고 가르치시며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셨습니다.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드러내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늘 당국과 이웃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가 양장 집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손님인척 하며 우리 집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이어져왔습니다. 하지만 감시 때문에 모두가 한 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지역별로 나눠서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가곤 했습니다. 가끔씩은 저의 외가 쪽 친척들께서 우리 집에 방문하시기도 했는데, 그날은 친가와 외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는 성경이 뭔지도 몰랐고 우리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은 베푸는 것을 잘하는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말실수를 해서 발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야 신앙을 전수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오면 할머니가 늘 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앉으신 곁에는 바구니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노동신문과 다 헤어진 양말, 또 바느질 도구

등이 들어있어 언뜻 보면 바느질을 하며 노동신문을 보고 계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할머니께서는 노동신문이 아닌 성경을 읽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 이건 무슨 책인가요?”라고 여쭙보면 할머니는 그저 “응, 그런 책이 있다.”라고 하시며 나가서 손님 오는지 보라고 보내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밖에 나가서 옷을 맡기러 오는 손님들이 있는지 보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의 저라도 진짜 옷을 맡기러 오는 손님들과 할머니가 기다리는 손님이 다르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시던 손님들이 올 때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동생과 함께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도 친할머니도 옛날 성경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한자와 옛한글이 섞여 있어서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몇 글자 지나고 나면 읽을 수 없는 책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읽는 책과는 다르게 펼쳐는 방향도 반대였고 글자의 방향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리고 찬송가까지 각각 세 권의 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성경책들은 이미 황색으로 바랄대로 바라진 상태였고 겉표지에 보풀이 일었을 뿐 아니라 손에 들기만 해도 금방 찢어질 것 같이 손때가 묻은 낡은 책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와 할머니가 쌀풀을 써서 새



하얀 인조 천으로 표지를 반듯하게 씌우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낡은 책을 정성스럽게 보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그 책이 귀한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북한에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고. 성경은 다 빼앗기고 믿는 사람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환난에서 어떻게 그 뿌리가 남아 있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왕상 19:18)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곳에는 그루터기가 남아있습니다. 그 땅에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신앙의 뿌리는 죽지 않았고 죽은 나무 같은 그루터기에는 계속해서 생명의 새 이파리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입단속 교육을 받고 자란 저는 자유세계에 와서도 내 입을 여는 일이 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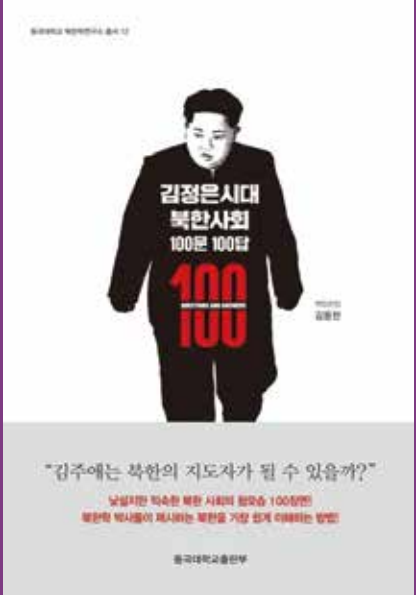
않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어려서부터 늘 “어디 나가서 함부로 입 열지 말아라.” “말할 줄 모르면 입을 닫고 있어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에 제 입을 열어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항상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눌 뿐입니다. 저는 단지 이 글을 통해 저의 자녀들이 충절로서 주님을 섬겼던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직 참으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만 영원토록 높여지길, 그리고 저와 저의 가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자손손 전해져 그들도 선조들을 본받아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 4:9)

(계속)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김정은시대 북한사회  
100문 100답  
**저 자:** 김용현 외  
**출판사:** 동국대학교출판부  
**발행일:** 2024년 8월 29일  
**가 격:** 32,000원

북한은 알면 알수록 더욱 알고 싶은 내용이 많아지는 나라인 것 같다. 실시간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보니 오늘 공부한 내용도 실제와 몇 년의 시간차가 존재하기 쉬운 북한 연구의 제한점들도 있고, 외부로 알려지거나 연구된 내용 중 대부분이 정치, 경제, 군사 등 굵직한 분야다 보니 정작 주민들의 세세한 실생활이나 북한 사회에 대한 가벼운 의문에는 오히려 답하기 어렵거나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오늘 소개할 책, ‘김정은시대 북한사회 100문 100답’은 북한에 관한 여러 궁금증을 100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는 질문들은 “김주애는 북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와 같은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나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 국제사회는 어떻게 제재를 하나요?”와 같은 정치·경제·군사 관련 거시적인 질문에서부터 “북한의 우유는 평양우유인가요?”나 “북한의 개고코드는 무엇인가요?”와 같은 일상과 문화에 대한 가벼운 질문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100가지 질문과 답변들을 분야에 따라 4개의 챕터로 구분하여 원하



는 질문을 찾기 쉽도록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책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상당히 최근 내용이라는 점이다. 종종 북한 관련 서적들 중에는 분명 요즘에 와서 출간된 책이지만 실제 다루는 북한의 모습은 수 년 이상의 과거의 것인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이 책은 23~24년도 내용을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어 좀 더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제되어 있는 듯한 북한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 해, 한 해가 다른 북한이기에 이런 점은 참 반갑다.

각 질문의 답변들이 간결하면서도 여러 사료나 근거 자료들을 잘 제시하며 심도 깊게 풀어내고 있는 점도 장점이다. 이로 인해 책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북한에 대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려 할 때에도 활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평가는 가능한 자제하고 객관적 사실 위주로 서술하려고 한 점도 눈에 띄다.

이 책은 처음부터 쪽 읽어 내려가더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책의 구성상 자신의 궁금한 점을 찾아보면서 독자 입장에서 흥미로운 내용부터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면서 장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 전반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관련 자료나 서적들 상당수가 연구서적에 분량이 상당하다 보니 쉽게 손에 들리지 않곤 한다. 이 책도 분량은 상당하지만 원하는 부분부터 읽기 쉽게 되어 있으니, 이러한 책으로 북한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북한에 대한 교양서적으로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김정은시대 북한사회 100문 100답”을 소개해본다. 

## 북, 우라늄 농축시설 첫 공개... 김정은 “핵물질 생산 총력”



북한이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과업을 제시했다고 9월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분리능을 더욱 높이”라며 “이미 완성단계에 이른 신형의 원심분리기 도입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2010년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트 헤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시설이 위치한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변이 아닌 미국 정보당국이 오래전부터 비밀 핵시설로 지목해 온 평양 인근 강선 단지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 매체가 발행한 사진을 보면 최신식 시설

안에 무기급 HEU를 얻는데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와 캐스케이드(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설비)가 빈틈없이 꽂 찬 모습이다.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은 HEU와 플루토늄이 있다. 북한은 핵물질 생산에 있어 최근엔 영변 원자로에서 소량으로 생산하는 플루토늄보다 지하에서 은밀하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HEU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오랫동안 은밀하게 관리해 온 핵심 핵시설을 전격 공개한 것은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한편 차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참고: 연합뉴스, 9월 13일) 

## 북, 탄도미사일과 쓰레기풍선 도발 지속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12일 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다. 당시 6연장 발사대를 이용해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동시다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이날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도 날려 보내며 도발 양상을 다변화했다. 오전에는 미사일을 쏘고 오후에는 풍선을 띄움으로써 우리 군 대비 태세에 피로도를 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을 묶은 복합 도발로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9월 18일 오전 6시 50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7월 1일 황해남도 장연에서 발사한 SRBM KN-23 계열의 개량형과 유사한 기종으로 추정된다. 당시 북한은 2발을 발사했고 “신형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의 시험발사였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을 시작으로 9월 18일까지 올해 21회에 걸쳐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은 비닐을 달아둔 풍선을 날리고 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닐을 태워 적재물이 떨어지게 하는 발열타이머 장치가 지상에서 작동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도 빈발했다. 풍선 띄우기는 지난 8월 10일 이후 약 한 달간 쉬다가 이달 들어 4~8일, 11일, 14~15일과 18일까지 진행하면서 숫자와 횟수를 늘리고 있다. (참고: 연합뉴스, 9월 18일) 

## “러시아 하산-북한 두만강역 오가는 열차 12월부터 주3회 운행”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에서 북한 두만강역을 오가는 정기열차가 오는 12월 15일부터 주 3회 운행될 것이라고 러시아

국영 철도회사 ‘러시아 레일’의 세르게이 포미체프 극동지역 개발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포미체프 국장은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

## 스웨덴 외교관 4년만에 평양 복귀… 서방국 중 첫 대사관 재가동




〈주북 스웨덴 대사관저 모습〉

스웨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4년만에 자국 외교관을 북한에 복귀시킨 것으로 9월 17일 확인됐다. 스웨덴 외무부는 지난 9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웨덴 외교관이 다시 평양에 복귀했다”며 “복귀와 함께 대사관 운영이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자 대다수 국가는 평양 주재 공관을 철수시켰고 스웨덴도 같은 해 8월 자국 외교관을 철

수시켰다. 북한은 지난해 8월 국경을 재개방했으나 중국·러시아·몽골·쿠바 등 친북 국가만 대사관 재운영을 허용했다. 서방 국가 중 코로나 사태 후 북한으로 외교관을 복귀시킨 나라는 스웨덴이 처음이다.


스웨덴은 1973년 서방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과 수교한 국가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미국을 대신해 미국인 영사 서비스는 물론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도 해왔다. 지난해 7월 무단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귀환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2019년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된 곳도 스웨덴 스톡홀름이다.

그간 스웨덴은 안드레아스 벵트손 주북 스웨덴 대사 내정자를 지난 2월 북한에 보내 왕야진 주북 중국대사를 만나게 하는 등 꾸준히 북한 대사관 재가동 준비를 해왔다. 현재 영국, 스위스 등도 자국 외교관 평양 복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참고: 연합뉴스, 9월 17일) 

산, 북한 나선시를 연결하는 철도 연장 노선을 개발 중이라며 오는 10월 이를 위한 시험운행을 하기로 북한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북한 철도는 나선에서 54km 떨어진 하산까지만 깔려있다.

앞서 북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여행사인 ‘고려투어’는 지난 8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12월 백두산 인근 삼지연에서 외국인 관광이 재개된다고 나머지 지역도 같은 시점에 외국인 관광이 재개될 것 같다고 공지한 바 있다.

(참고: 연합뉴스, 9월 21일) 



## 김정옥 선교사 北억류 4천일… “석방하라” 한·미·캐나다 촉구



〈김정옥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통일부 장관 성명〉을 발표하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한국·미국·캐나다 등 3국이 김정옥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천일이 되는 날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정부는 9월 2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지금 북한에는 김정옥·김국가·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여섯 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돼 있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이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 기간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 외에도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의 불법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도 억류자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송환”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의 한국인 억류자 관련 성명 발표는 처음이다. 캐나다 외교부도 소셜미디어에 김씨 등 한국인 억류자 석방을 북한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국내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위킹그룹(TJWG), 영국 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CSW) 등 민간단체도 김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김정옥 씨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가 2013년 10월 8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듬해 5월 30일 재판에서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김국가·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 10월과 12월에 체포돼 2015년 6월에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됐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은 2016년에 억류됐다. (참고: 연합뉴스, 9월 20일)

**1**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화 난에 따른 환율 상승 및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형편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을 명목으로 시장 대신 국가 주도의 배급 경제를 다시금 활성화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루 속히 자신의 안위를 핵보유에 의존할 수 없음을 깨닫고 방향을 돌이키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민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압록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로 인해 신의주와 의주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와 만포시 등 자강도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지에서 들려오는 수해 피해와 북한의 대응은 매우 심각합니다. 수해 복구는 수재민 지원보다도 김씨 일가 초상화나 우상화 사적지 보존이 먼저이고, 각종 세외 부담 강요로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형편입니다. 수해 피해에 더해 국가의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재민들과 수해를 입은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이 공급되고 원활하게 수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동안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 체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무시 받던 여성들이 장마당의 활성화에 따라 북한 사회를 이끄는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화적 제약이 남아있는 가운데 여성들에게 가계 경제와 국가 노동력 및 인구문제까지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는 모습입니다. 북한 여성들에게 하루 속히 복음이 편안하게 전해지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이들이 가진 폭넓은 관계망을 통해 북한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과 해외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도 안전에 유의하는 가운데 힘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송된 신자들과 강제복송 중단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또한 선교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북한 내 지하교회 적발 사건들이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행방이 묘연해진 가구들을 고려할 때 예상 피해 규모가 어림잡아 200여명에 달할 것

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붙잡힌 성도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5**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옥 선교사님이 억류되신지 4,000일이 되는 날을 맞아 한국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석방 촉구 성명이 있었습니다. 김정옥(2013), 김국기(2014), 최준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북한의 억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들 갇힌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갇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6** 해외 북한선교현장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러시아 정보기관에 의해 간첩혐의로 체포된 백 모 선교사님의 구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사역의 위축 우려가 높아지던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체포된 백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 선교 현장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국경지역의 현장 사역자와 북한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제목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제 3국 북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들의 사역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통일교를 비롯해 여러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여러 지원을 명목으로 탈북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이단들의 행보가 끊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신앙을 가진 탈북여성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어 거짓에 속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여성들을 양육하는 현장사역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분별력을 더하시도록, 그리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두 손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4년 9월 30일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에서  
선교를 위한 자료개발과 한국교회에 기도정보 제공을 위해  
계간 “북한지역연구”를 2023년 여름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의 온라인 버전은  
홈페이지([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지역연구”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요청하기”메뉴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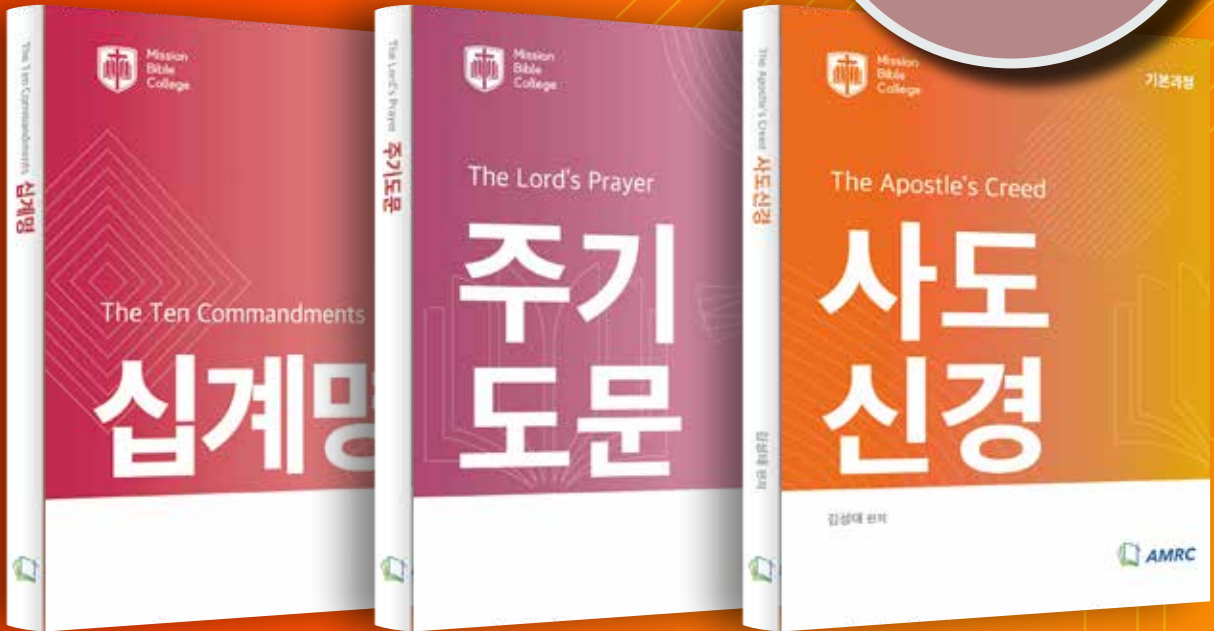
Mission  
Bible  
College

# 성경대학시리즈

##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제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